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3년 6월

전망과 정책과제

| | |
|-----------------------|----|
| 제1장 국내경제동향 | 5 |
|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 27 |
| 제3장 국내경제전망 | 39 |
|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 47 |

부록

| | |
|--------------|----|
| 주요경제통계 | 57 |
|--------------|----|

한국경제연구원

편집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원

허찬국

배상근

김창배

서준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2. 대외거래부문
3. 물가부문
4. 통화·금융부문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주요국의 경제동향 및 전망
2. 국제금융시장: 금리 및 환율
3. 원자재가격

제3장 국내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금융부문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부록 주요경제통계

제 1 장

국내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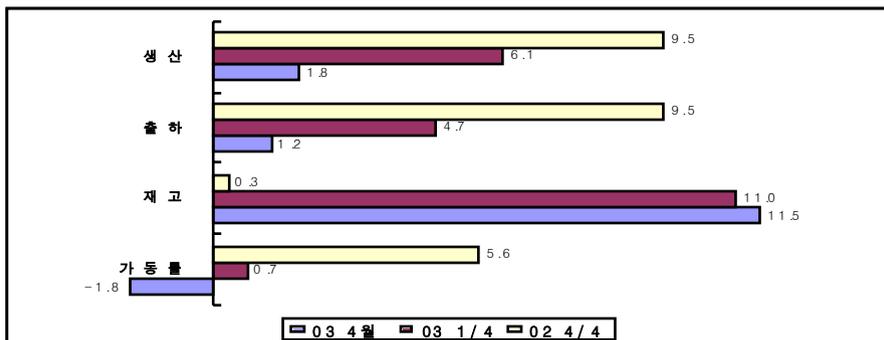
1. 실물부문

산업경기 위축 가시화

- 금년 들어 생산증가세가 둔화되고 재고가 증가하는 등 산업경기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음
 - 생산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 9.5%에서 금년 1/4분기에는 6.1%로 둔화된데 이어 4월 중에는 1%대로 급락.
 - 제조업가동률도 1/4분기중에는 0.7%증가에 그친데 이어 4월중에는 감소세
 - 반면 재고는 11%대로 크게 증가

<그림 1> 산업활동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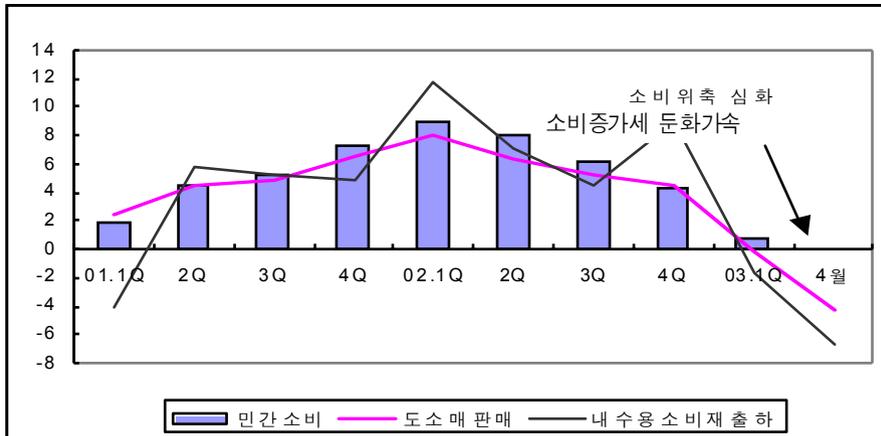


소비위축 가속화

- 지난해 2/4분기 이후의 소비위축 현상이 더욱 가속화
 - 1/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4.3%)에 비해 크게 낮은 0.9%에 그침
 - 도소매판매액과 내수용소비재출하지수는 2월이후 연속 3개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 폭도 확대

<그림 2> 주요 소비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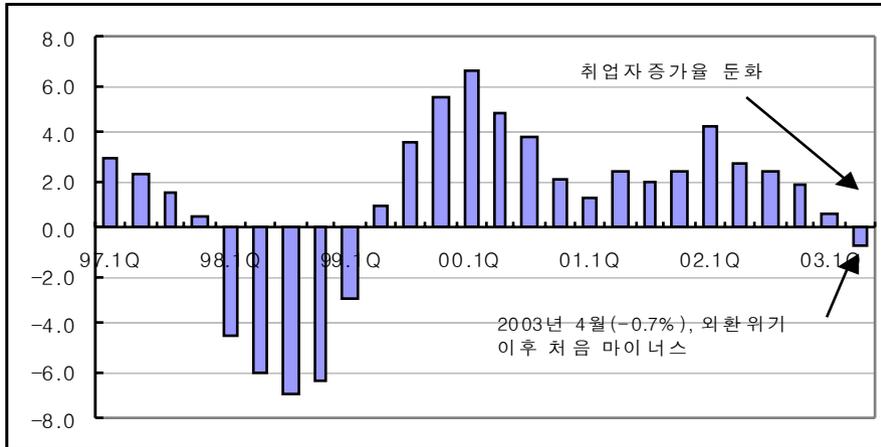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 이와같은 소비위축 심화는 최근의 민간부문의 소득기반 약화가 소비심리 악화와 보수적 소비행태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지난 해부터 둔화되기 시작한 고용증가세가 올 4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가계부문의 주된 소득源인 근로소득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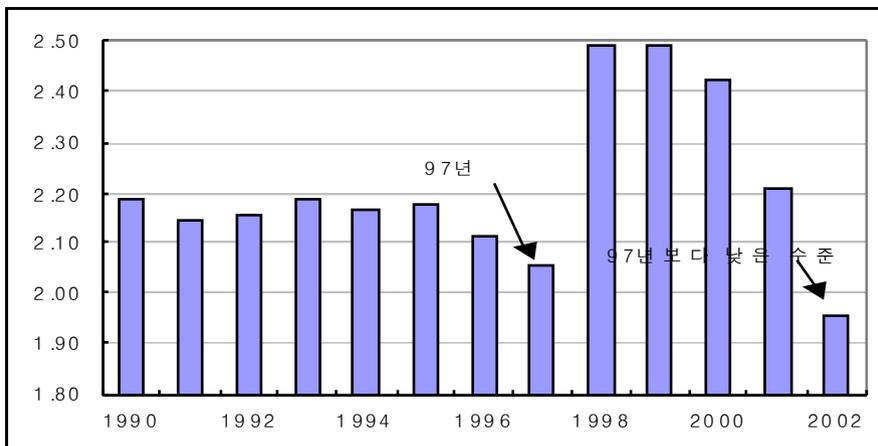
<그림 3>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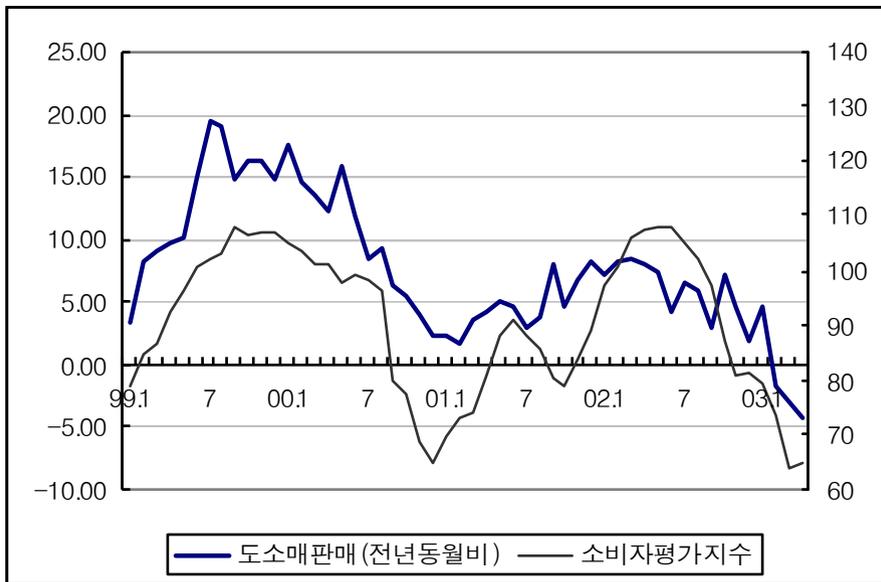
- 개인부문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약 1.95배 수준으로 약 2.05배를 기록했던 외환 위기 때보다 더 낮은 수준. 더욱이 이자율이 대폭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의 자산소득은 크게 약화

<그림 4>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개인부문)



- 이에따라 소비자 평가지수가 유사한 수준이었던 2000년말에 비해 최근의 도소매 판매액의 감소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주체들의 소비행태가 매우 보수적으로 바뀌었음을 반영하고 있음.

<그림 5> 도소매판매와 소비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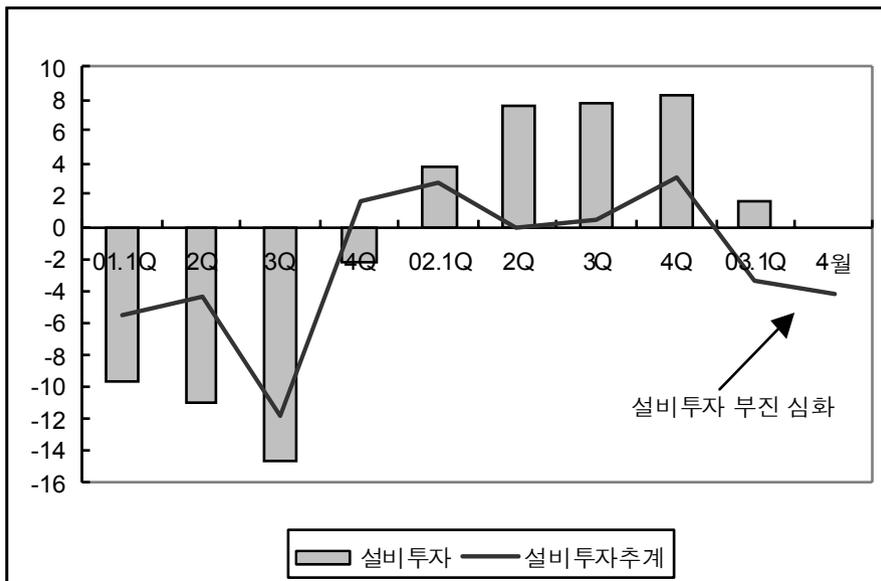


설비투자 부진의 심화

- 지난 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설비투자가 금년 들어 감소세를 지속
 - 지난해 4/4분기 6.8%의 증가율을 보였던 설비투자가 1/4분기중에는 1.6%증가에 그침
 - 설비투자추계(통계청 조사)는 1/4분기중 3.4%감소한데 이어 4월중에는 4.2%감소함으로써 설비투자 부진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6> 주요 설비투자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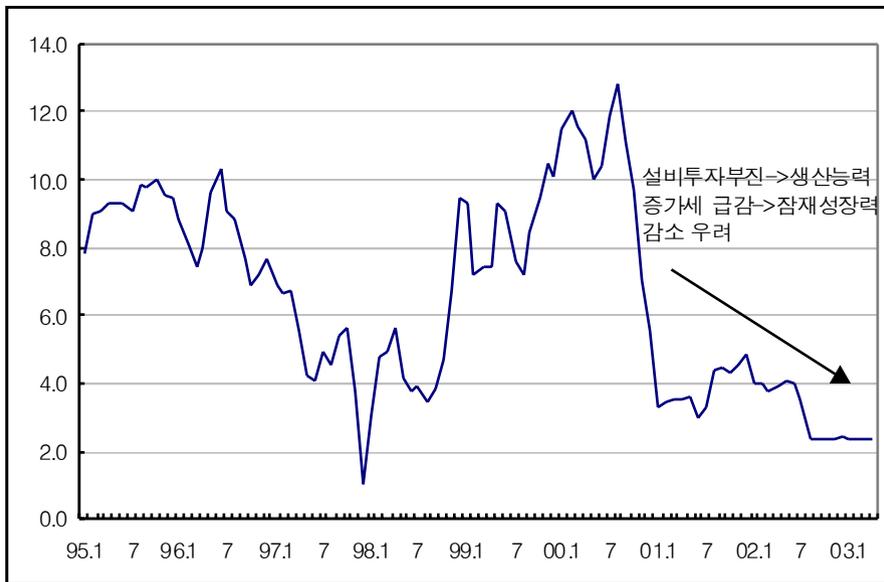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



- 이로 인해 제조업의 생산능력증가는 지난 해 하반기 이후 2%대로 정체되었으며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

<그림 7>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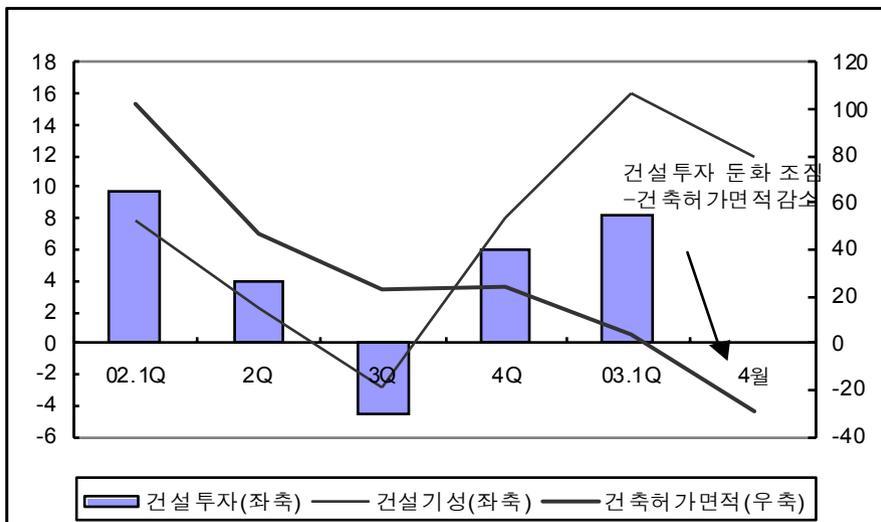
* 제조업생산능력지수 : 사업체의 주어진 조건(설비, 노동력, 사내지정조업시간 및 일수 설비효율 등)하에서 정상 가동시 최대 생산량

건설투자 증가세 둔화 조짐

- 건설기성이 지난해 4/4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이 큰 폭으로 둔화되는 등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조짐
 - 건설기성은 태풍피해 복구사업과 그동안 급증한 건축허가가 시공으로 이어지면서 높은 증가세를 지속
 - 그러나 최근 주거용을 중심으로 건축허가가 크게 둔화되고 있어 향후 건설투자 증가세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8> 건설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2. 대외거래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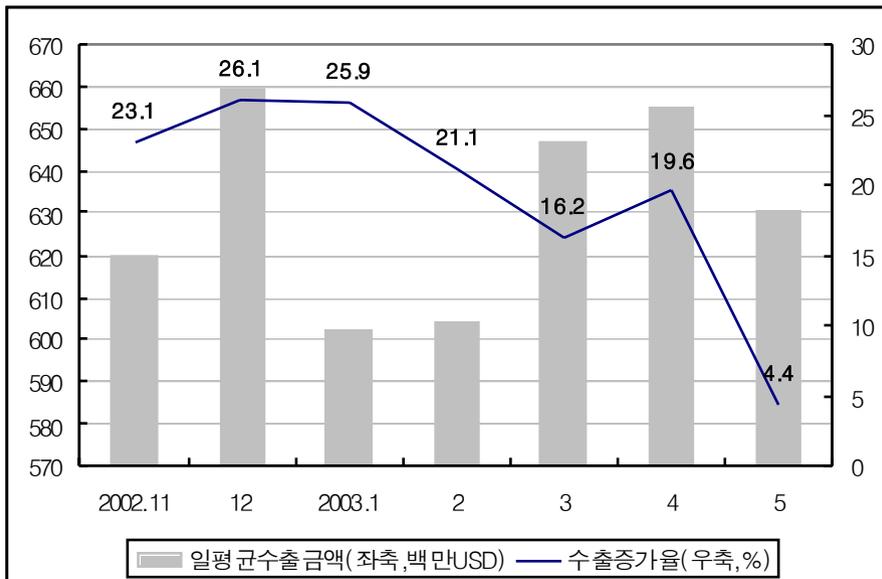
수출 : 증가세 둔화

■ 수출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

- 1/4분기 20.8%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4~5월에는 12.3%로 증가율이 둔화
- 일평균수출액도 4월 6.6억달러에서 5월에는 6.3억달러로 하락

<그림 9> 수출증가율과 일평균수출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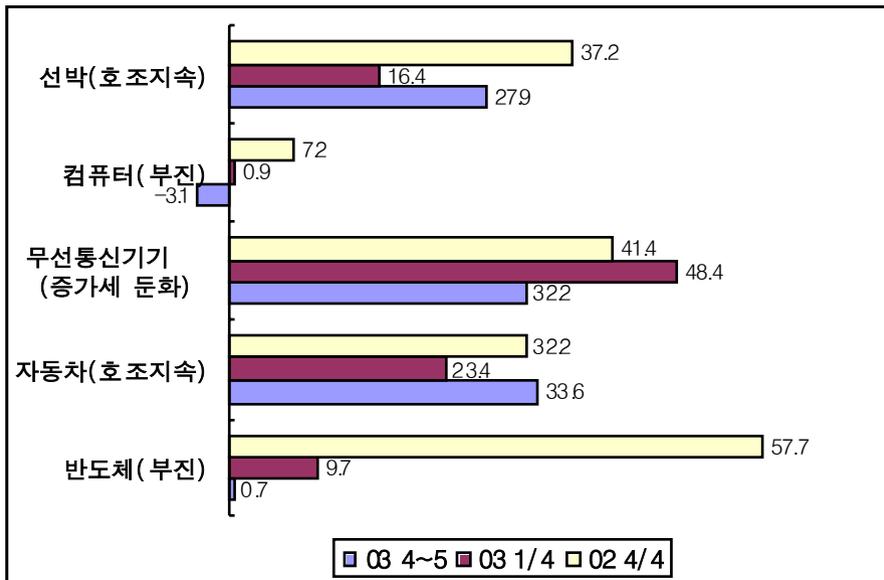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비(%), 백만USD



- 주요 품목별로는 자동차수출은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무선통신기기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고 반도체와 컴퓨터는 부진
 - 자동차는 수출차종의 고가화 및 내수위축에 따른 업계의 수출증대 노력으로 호조 지속
 - 컴퓨터는 수요부진과 주요업체의 생산라인 해외이전(삼성전자 - 중국, 삼보컴퓨터 - 멕시코, 중국 등) 등으로 4, 5월 연속 2개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는 D램가격 하락세의 영향으로 부진
 - * DDR256M(\$/개) : 6.46('02 12월) ⇒5.69(' 03 1월) ⇒3.25(3월) ⇒3.11(5월)
 - 무선통신기기는 사스 여파로 휴대폰의 대중국수출이 급감하면서 증가세가 둔화
 - * 對중국 휴대폰 수출증가율(%) : 478.4(' 03 1/4) ⇒13.4(4월) ⇒-40.7(5월)

<그림 10 >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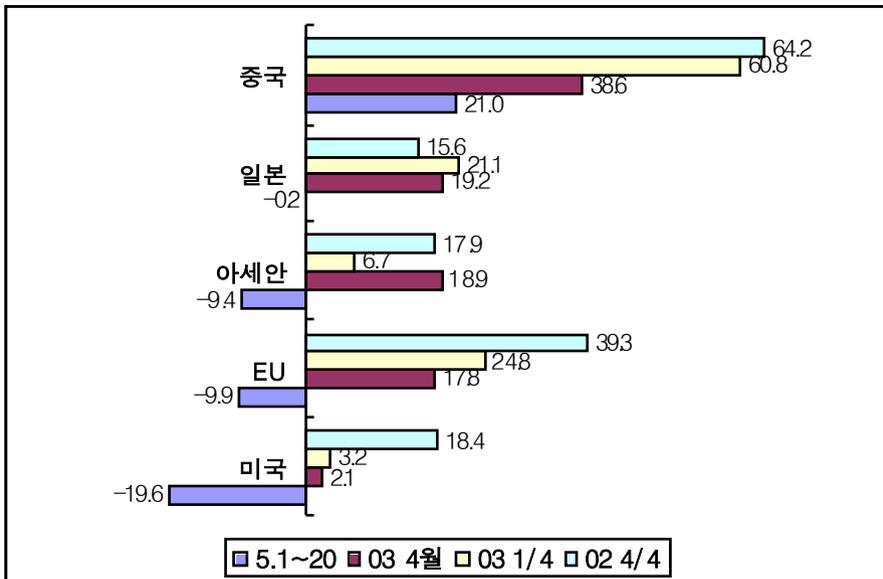


■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도 대부분 증가세가 크게 둔화

- 5.1 ~ 20일 중 미국, 일본, EU, 아세안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보임.
- 對中國수출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는데 사스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림 11 >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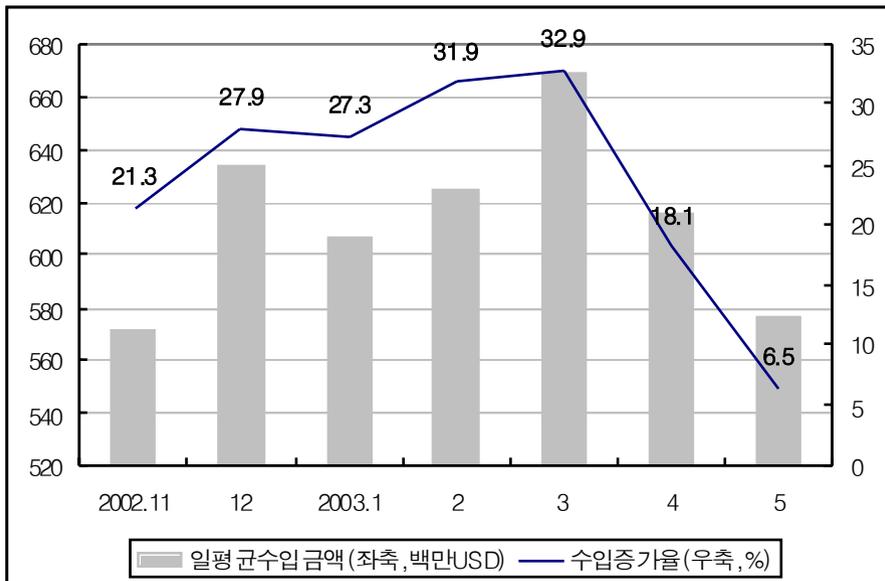


수입 : 증가세 크게 둔화

- 국제유가 안정, 투자부진,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
 - 1/4분기 30.9%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4월 18.1%, 5월 6.5%로 증가율이 둔화
 - 일평균수입액도 3월(6.7억달러)를 고점으로 점차 하락

<그림 12> 수입증가율과 일평균수입금액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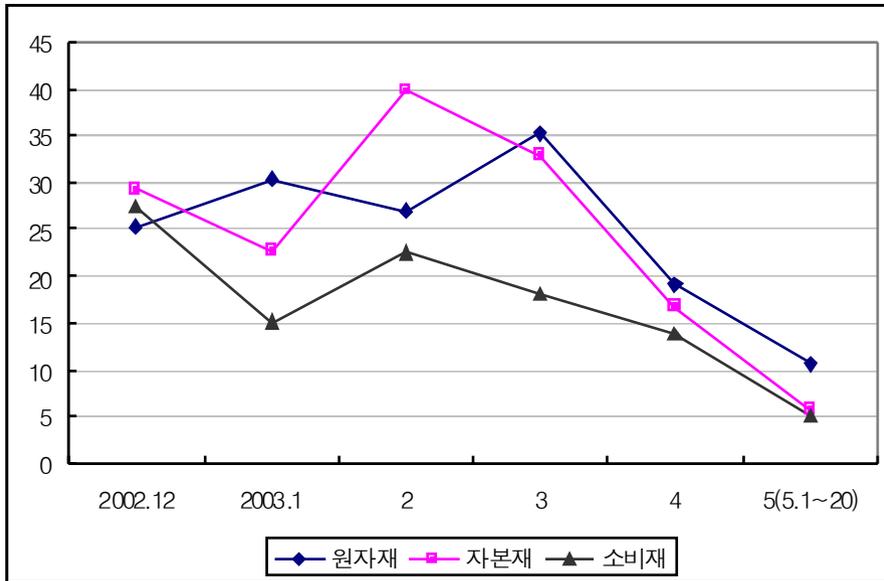


■ 용도별 수입동향

- 원자재수입은 이라크 종전이후 국제유가 안정세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 자본재수입은 내수부진과 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증가세 큰 폭 둔화
- 소비재수입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증가세 둔화

<그림 13> 용도별 수입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



경상수지 : 지난해 12월 이후 연속 5개월 적자 지속

- 서비스수지 적자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품수지의 흑자규모가 축소되면서 경상수지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적자
 - 상품수지는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면서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
 - 여행수지와 기타서비스(특허권사용료, 사업서비스 등)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인해 서비스수지의 적자 지속

<표 1> 경상수지 추이

단위: USD 100만

| | 2002 | | | | | 2003 | | | | |
|------|-------|-------|-------|-------|-------|-------|------|-------|-------|-------|
| | 1/4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3월 | 1/4 | 4월 |
| 경상수지 | 15.9 | 16.0 | 9.3 | 19.7 | 60.9 | -4.2 | -1.1 | -11.9 | -17.2 | -3.7 |
| 상품 | 31.2 | 43.7 | 28.3 | 38.7 | 141.8 | 7.9 | 5.0 | -0.6 | 12.3 | 12.7 |
| 서비스 | -15.0 | -16.0 | -22.2 | -21.4 | -74.6 | -11.9 | -8.9 | -5.0 | -25.7 | -3.5 |
| 소득 | 0.2 | -8.8 | 6.4 | 6.6 | 4.5 | 2.8 | 4.6 | -4.3 | 3.1 | -12.0 |
| 경상이전 | -0.5 | -2.9 | -3.2 | -4.2 | -10.8 | -3.0 | -1.8 | -2.0 | -6.8 | -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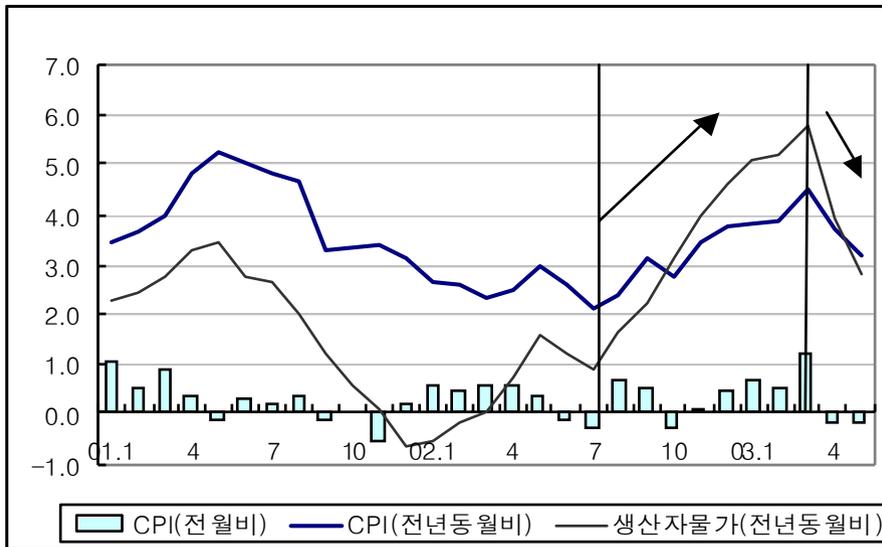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3. 물가부문

물가상승압력 완화로 물가상승률 둔화

- 지난 해 8월 이후 지속되던 물가상승세가 금년 4월 이후에 크게 둔화
 -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금년 3월에는 4.5%를 보였으나 4월 3.7%, 5월 3.2%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전월비로는 4월, 5월 연속 2개월 하락
 - 생산자물가는 금년 들어 연속 3개월 5%대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4월에는 3.9%, 5월에는 2.8%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

<그림 14>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추이



- 이는 국제유가와 원화환율의 하향안정세로 비용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크게 약화된 데다 내수부진 심화에 따른 수요측면에서의 물가하락요인이 작용한 데 기인

<표 2> 주요 물가하락 요인

| | 2003년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원유도입단가(\$/BBL) | 28.40 | 30.41 | 31.95 | 28.28 | 26.65 |
| 원화환율 (원/달러, 평균) | 1179.5 | 1191.3 | 1233.7 | 1231.5 | 1200.1 |
| 도소매판매 (전년동월비,%) | 4.5 | -1.8 | -3.0 | -4.3 | - |
| 설비투자 (전년동월비,%) | -7.7 | -3.6 | 0.1 | -4.2 | - |

4. 통화 · 금융부문

최근 총유동성 증가율 둔화

- 작년 3월부터 12~13%대를 유지했던 M3 증가율이 최근 하락하기 시작하여 4월중에는 10.3%(잠정) 기록
 - 이러한 총유동성 증가율 둔화는 금년 들어 가계대출이 전년 동기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에 기인
 - M1 증가율은 작년 4월 이후 하락세가 점진적으로 지속되어 금년 4월중에는 5.3%를 기록하였고, M2는 작년 말에 다소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금년에 들어선 그 증가세가 둔화

<표 3> 주요 통화지표 추이

단위 : 평잔기준, 전년동기대비(%)

| | 2001년 | 2002년 | | | | | | | | | 2003년 | | | | |
|-------|-------|-------|------|------|------|------|------|------|------|-----|-------|------|------|------|------|
| | 연간 | 1월 | 2월 | 3월 | 1/4 | 4월 | 2/4 | 3/4 | 4/4 | 연간 | 1월 | 2월 | 3월 | 1/4 | 4월 |
| (신)M1 | 18.0 | 25.6 | 28.1 | 26.8 | 26.8 | 28.9 | 27.9 | 20.3 | 16.1 | 225 | 13.7 | 9.5 | 7.8 | 10.3 | 5.3 |
| (신)M2 | 6.9 | 8.5 | 8.8 | 11.1 | 9.5 | 12.3 | 12.4 | 10.9 | 13.0 | 115 | 13.9 | 13.3 | 11.9 | 13.1 | 10.3 |
| M3 | 9.6 | 11.6 | 11.9 | 12.9 | 12.1 | 13.7 | 13.7 | 12.6 | 13.2 | 129 | 13.1 | 12.5 | 11.7 | 12.4 | 10.3 |

자료: 한국은행, 2003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금융시장 불안요인 하반기 해소 불투명

- SK글로벌 분식회계, 카드채 문제, 신용불량자 및 가계부실화, 복핵문제 등과 관련된 한미공조관계 등으로 불안했던 금융시장이 최근 안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불안요인들의 하반기 해소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
 - 더욱이, 카드채 문제에 대한 연이은 금융시장 안정책(3월 17일, 4월 3일, 5월 2일)으로 투신사 환매사태는 일단 진정되었으나, 6월말로 카드채에 대한 만기연장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7월 금융대란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4월말 현재 9개 전업카드사가 한 달 이상 연체율 10.9%, 1/4분기에 1조3천억원의 당기순손실, 3조3천억원의 부실채권 보유
 - 3월말 전체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2%로 개정,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8%는 상회, 다만 국민카드 8.1%, 현대카드 8.2%를 기록하여 하위권 형성
 - 그러나, 5월 30일 발표된 카드사 하반기 자기자본 확충계획이 계획대로 확충된다면,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2%(3월말) → 15.47%로 개선

금년 말 신용불량자 400만 예상

- 4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308만6천명으로 전 국민의 7%,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13.5% 차지하고 있고, 현재 추세로 증가한다면 금년 말에 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 ※ 신규 신용불량자: 10.6만명(1월) → 9.6만명(2월) → 11.8만명(3월) → 12.9만명(4월)
- 20대와 30대 신용불량자가 각각 60만3천명과 90만3천명을 기록하여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 정도 차지
- 신용카드관련 신용불량자는 186만9천명 기록하여 전체 신용불량자의 61%를 차지하여 신용카드의 남용이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

장단기 금리격차 축소 지속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등의 장기시장금리가 작년 12월 중순 이후 하락세 지속
- 이는 향후 국내경제전망 불투명, 북핵문제 등의 한미공조관계에 대한 불안요인과 함께 장기채권 발행축소, 금융시장 불안정 지속, 콜금리목표 인하(5.13) 등에 기인
- 5월 13일 정책금리인하 이후 장단기 금리차가 일시적으로 다소 확대되었으나, 다시금 축소되고 있는 경향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이 6월 들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단기시장금리인 CD(3개월)나 CP(3개월) 보다는 이미 낮은 수준
- 단기금리에 비해 장기금리의 하락폭이 보다 커 장단기 금리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 보다 밑으로 내려가 경기하강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 존재

<표 4> 주요 금리 추이

단위: 월말기준, 연리 %

| | 2000 | 2001 | 2002 | | | | 2003 | | | | | |
|-------------|------|------|------|------|------|------|------|------|------|------|------|------|
| | 12월 | 12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10 |
| 콜(익일) (A) | 6.01 | 4.00 | 4.27 | 4.28 | 4.27 | 4.52 | 4.34 | 4.26 | 4.25 | 4.25 | 3.99 | 4.00 |
| CD(91일) | 6.87 | 4.86 | 4.86 | 4.94 | 4.90 | 4.90 | 4.55 | 4.53 | 4.70 | 4.54 | 4.30 | 4.29 |
| CP(91일) | 7.26 | 5.07 | 4.95 | 5.07 | 5.03 | 5.03 | 4.68 | 4.64 | 5.27 | 5.21 | 4.79 | 4.70 |
| 국고채(3년) (B) | 6.70 | 5.91 | 5.30 | 5.33 | 5.35 | 5.11 | 4.77 | 4.60 | 4.62 | 4.46 | 4.10 | 4.04 |
| 회사채(3년) (C) | 8.13 | 7.04 | 6.00 | 5.95 | 5.96 | 5.68 | 5.29 | 5.14 | 5.38 | 5.32 | 5.21 | 5.18 |
| B-A(%P) | 0.69 | 1.91 | 1.03 | 1.05 | 1.08 | 0.59 | 0.43 | 0.34 | 0.37 | 0.21 | 0.11 | 0.04 |
| C-A(%P) | 2.12 | 3.04 | 1.73 | 1.67 | 1.69 | 1.16 | 0.95 | 0.88 | 1.13 | 1.07 | 1.22 | 1.18 |

자료: 한국은행, 일일주요금리동향 (www.bok.or.kr)

시중유동성의 '풍요속의 빈곤' 현상 지속

-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불투명과 함께 금융권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이나 경영권 유지를 위한 자사주 매입 등으로 시중자금이 기업자금수요나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최근 시중유동성의 '풍요속의 빈곤' 현상 지속

※ 만기 6개월 미만 금융권 수신: 3월말 현재 376조원

- 우량한 대기업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설비투자를 회피하면서 경영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내부유보자금을 자사주 매입 등으로 소진
- 중소기업이나 비우량 대기업의 경우는, 기업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

자금사정 : 기업의 직접자금조달 악화

- 회사채는 장기자금수요의 부진과 함께 SK글로벌 분식회계 이후 투신사수신의 감소세, 회사채 프리미엄(회사채 유통수익률 - 국고채 유통수익률)의 상승 등에 따른 회사채 발행여건 악화로 인해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어 직접자금조달 악화
- 또한 기업어음의 발행급감 및 수요부진으로 CP발행 잔액도 큰 폭의 감소세

<표 5>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단위 : 기간중 증감, 조원

| | 2002년 | | | | | 2003년 | | | | | |
|----------------------|-------|------|------|------|------|-------|------|------|------|------|------|
| | 연중 | 1/4 | 2/4 | 3/4 | 4/4 | 1월 | 2월 | 3월 | 1/4 | 4월 | 5월 |
| 회사채순발행 ¹⁾ | -8.1 | -3.2 | -3.6 | -0.8 | -0.4 | -0.2 | -0.6 | -0.3 | -1.0 | -0.5 | -0.4 |
| CP순발행 | 10.9 | 4.7 | 3.4 | 2.5 | 0.3 | 4.7 | 1.6 | -4.0 | 2.2 | -4.5 | -5.1 |

주 : 1) 공모회사채 기준, ABS 및 법정관리, 회의, 워크아웃, 채무조정기업의 만기도래분 제외, 단 Primary-CBO 및 産銀신속인수분 포함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

5월 들어 외국인투자자 주식 순매수로 전환

- 5월 들어 외국인투자자의 주식 순매도 경향에서 순매수로 전환
 - 이는 미국 주가 상승, SK글로벌의 분식회계나 카드채 부실화 등과 관련된 우려 완화, 북핵문제 등과 관련된 한미공조관계에 대한 공고화 등에 기인

<표 6>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

단위 : 억원

| | 2002년 | | | 2003년 | | | | |
|---------------------|---------|-------|---------|-------|--------|--------|--------|-------|
| | 상반기 | 하반기 | 연중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주식순매수 ¹⁾ | -36,307 | 9,193 | -27,114 | 2,827 | -7,346 | -8,166 | -7,588 | 6,831 |

주 : 1) 거래소+코스닥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

미국 달러화 약세로 원화가치 다소 상승세

- 엔/달러 환율이 그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동조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금년 2월초부터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의 일시적 하락세를 시현하였으나, 미·이라크 전쟁의 사실상 종전 이후 미 달러화 약세 지속
-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경상수지 적자누증,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따라 나타난 미국 달러화 약세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

<표 7> 원화 및 엔화 환율 추이

| | 2001년 | 2002년 | | | | 2003년 | | | | | |
|--------|----------------------------|----------------------------|----------------------------|----------------------------|-----------------------------|----------------------------|----------------------------|----------------------------|----------------------------|----------------------------|----------------------------|
| | 12월말 | 3월말 | 6월말 | 9월말 | 12월말 | 1월말 | 2월말 | 3월말 | 4월말 | 5월말 | 6월말 |
| 원/달러 | 1,313.5 ----- (3.1) | 1325.90 ----- (-0.9) | 1201.30 ----- (+9.3) | 1227.80 ----- (+7.0) | 1186.20 ----- (+10.7) | 1170.10 ----- (+1.4) | 1193.70 ----- (-2.0) | 1254.60 ----- (-5.1) | 1215.30 ----- (+3.1) | 1205.90 ----- (+0.8) | 1196.70 ----- (+0.3) |
| 엔/달러 | 131.64 ----- (6.6) | 132.67 ----- (-1.0) | 119.34 ----- (+11.2) | 121.90 ----- (-2.1) | 118.68 ----- (+2.7) | 119.00 ----- (-0.3) | 118.11 ----- (+1.1) | 117.99 ----- (+0.1) | 118.88 ----- (-0.8) | 119.30 ----- (-0.4) | 118.21 ----- (-0.7) |
| 원/100엔 | 1,009.4 ----- (-2.7) | 998.95 ----- (+1.0) | 1004.51 ----- (-0.6) | 988.37 ----- (+1.6) | 1012.87 ----- (-2.5) | 987.06 ----- (+2.5) | 1008.54 ----- (-2.8) | 1044.65 ----- (-3.6) | 1014.00 ----- (+2.9) | 1014.00 ----- (+2.9) | 1011.07 ----- (+1.1) |

주 : 1) 종가기준
 2) 뉴욕시장 증가
 3) 외환은행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당일 최종고시가)
 4) ()내는 전월말(전월동일)대비 절상(+), 절하(-)율(%)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주요국의 경제동향 및 전망

미국 : 하반기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 예상

■ 동향

- 고용불안의 지속이 경제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1/4분기 GDP성장률은 예상(2.4%)보다 낮은 1.9%에 그침
 - 성장률이 둔화된 원인은 민간부문의 고정투자가 4.8% 감소한 것에 기인
 -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가 15주 연속 400,000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5월 실업률은 6.1% 기록(94년 7월이후 최고치)하여 고용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던 개인소비지출이 4월에는 0.1% 감소(이는 작년 2월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임)
- 종전 이후 소비심리는 개선되고 있으나, 제조업 관련 지표들은 여전히 부진
 - 소비신뢰지수(Conference Board발표)는 1/4분기 68.3에서 5월 83.8로 상승

- 반면 4월 산업생산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공장가동률(74.4)은 20년만에 최저 수준 기록, 또한 4월중 내구재수주는 전월대비 2.4% 감소. 특히 기업설비투자 관련 선행지표인 비국방자본재 수주는 3.0% 감소

<표 8> 미국의 경제성장과 주요 경제지표

단위:전기대비(%), 만건

| | 2001 | 2002 | | | | 2003 | | |
|------------------------|----------------|----------------|----------------|----------------|----------------|----------------|----------------|----------------|
| | | 연중 | 2/4 | 3/4 | 4/4 | 1/4 | 4월 | 5월 |
| GDP성장률 ¹⁾ | 0.3 | 2.4 | 1.3 (2.2) | 4.0 (3.3) | 1.4 (2.9) | 1.9 (2.1) | - | - |
| 산업생산 | -3.5 | -0.7 | 1.1 | 0.8 | -0.7 | 0.1 | -0.5 | - |
| 개인소비지출 | 0.3 | 0.5 | 0.3 | 0.3 | 0.7 | 0.3 | -0.1 | - |
| 소매판매액 | 3.9 | 3.3 | 0.5 | 0.2 | 0.8 | 0.4 | -0.1 | - |
| 공장수주 | -0.7 | 0.2 | -0.4 | 0.5 | 0.3 | 0.9 | -2.9 | - |
| 내구재수주 | -0.9 | 0.2 | -1.2 | 0.9 | 0.0 | 0.8 | -2.4 | - |
| 신규실업청구건수 | 40.6 | 40.4 | 41.1 | 40.0 | 40.4 | 40.6 | 44.2 | 43.0 |
| 실업률 | 4.8 | 5.8 | 5.8 | 5.8 | 5.9 | 5.8 | 6.0 | 6.1 |
| 경기선행지수 | 108.6 | 111.0 | 111.1 | 110.8 | 111.0 | 110.5 | 110.5 | 110.6 |
| 소비자신뢰지수 ²⁾ | 106.6 | 96.6 | 108.4 | 95.2 | 81.7 | 68.3 | 81.0 | 83.8 |
| ISM제조업지수 ³⁾ | 44.0 (48.5) | 52.4 (55.1) | 54.4 (57.5) | 50.6 (53.1) | 51.8 (54.6) | 50.2 (52.1) | 45.4 (50.7) | 49.4 (54.5) |

주 : 1) 전기대비 연율, ()내는 전년동기대비

2) Conference Board(1985=100)

3) 기준치=50, 괄호안은 ISM서비스지수임.

자료 : 미 상무부, 노동부, 연준, 공급관리협회(ISM) 등

■ 전망

■ 하반기부터 회복을 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경제는 아직 과잉설비 부담이 아직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가계·기업의 채무 누증, 과도한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적자 등 경제의 기초여건이 취약하고, 종전 이후에도 추가테러 위협 등 지정학적 위험이 남아 있음.
- 그러나 유가하락, 주가상승,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가계소비가 호전되고, 달러약세로 인한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의회를 통과한 조세감면조치와 연준리의 통화 확대정책 등 경기부양정책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전망
- 주요 투자은행들도 미국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여 연간 2.1~2.5%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일본 : 올해 성장률, 1.0%내외로 둔화될 전망

■ 동향

■ 일본경제는 디플레이션의 지속과 해외경기의 둔화로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올해 1/4분기 GDP성장률은 작년 4/4분기보다 크게 둔화된 0.1% 기록.
- 디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임금의 감소와 고용 악화(4월 실업률 5.4%로 사상 최고치)로 소비지출 부진이 지속

- 경제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은행부실채권 누적과 디플레이션 지속에 있음.
 - 은행들의 부실채권처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및 기업의 수익악화로 부실채권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 못함.
 - * 2003년 3월, 7대은행그룹의 부실채권잔액은 20.2조원으로 전체 여신의 7.2%
 - 디플레이션의 지속으로 중앙은행의 팽창적 통화정책이 경기부양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 은행들의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대출기피와 기업들의 채무상환으로 통화량(m2+cd)증가효과는 미미

■ 전망

- 올해 성장률(회계연도기준)은 작년에 비해 0.5%p 정도 낮은 1.0%내외로 전망됨.
 - 디플레이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악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비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주요 투자은행과 일본중앙은행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7~1.1%내외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

<표 9>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전기대비 (%)

| | 2001 | 2002 | | | 2003 | | | | |
|----------------------|------|-------|---------------|--------------|--------------|--------------|------|------|------|
| | 연간 | 연간 | 2/4 | 3/4 | 4/4 | 1/4 | 2월 | 3월 | 4월 |
| GDP성장률 ¹⁾ | -1.2 | 1.6 | 5.2 (-0.3) | 3.1 (1.7) | 2.5 (2.5) | 0.1 (2.5) | - | - | - |
| 광공업생산지수 | -6.8 | -1.4 | 2.8 | 2.0 | 0.4 | 0.0 | -1.6 | 0.1 | -1.2 |
| 민간기계수주 | -5.8 | -12.0 | 4.8 | 0.1 | -0.1 | 5.8 | -6.8 | 3.8 | -1.8 |
| 소매판매액 ²⁾ | -2.2 | -3.9 | -3.8 | -3.6 | -2.9 | -1.3 | -0.3 | -0.9 | -2.7 |
| CPI상승률 ²⁾ | -0.7 | -0.9 | -0.9 | -0.8 | -0.5 | -0.2 | -0.2 | -0.1 | -0.1 |
| 실업률 | 5.0 | 5.4 | 5.4 | 5.4 | 5.4 | 5.4 | 5.2 | 5.4 | 5.4 |
| 가계소비지출 | -0.8 | -0.2 | 1.3 | 1.7 | -2.6 | -2.0 | -1.6 | -2.3 | -1.0 |
| 수 출 ²⁾³⁾ | -5.2 | 6.4 | 5.8 | 7.3 | 16.2 | 5.4 | 7.6 | 0.7 | 4.7 |
| 수 입 ²⁾³⁾ | 3.6 | -0.4 | -4.5 | 2.4 | 9.6 | 8.2 | 4.6 | 9.3 | 5.4 |

주 : 1) 연간지표는 회계연도기준임, 전기대비연율,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2) 전년동기대비

3) 통관기준

자 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일본은행 등

유로지역 : 올해, 지난 해에 이어 저성장 지속 전망

■ 동향

- 유로지역의 경제는 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화 강세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1/4분기 GDP성장률은 제로성장에 그침

- 특히 역내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0.2%)
 - 경기부진에 따라 4월 실업률은 3년만에 최고치 수준인 8.8%
 - 올해 초 호전기미를 보였던 주요 심리지표들도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3월중 다시 하락세. PMI지수와 경기체감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인플레이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2.5%에서 2.0%로 0.5%p 인하
- 유로지역의 성장부진은 독일경제의 경기침체에 기인.
- 독일 경제 침체의 원인은 구조적으로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경직적인 노동시장, 그리고 기업에 대한 관료적 규제라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경기순환요인으로는 세계경제가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성장동력인 수출이 유로화의 강세로 인하여 부진한 것이 원인임.
 - 5월 실업률(10.7%)은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자수는 약 450만명. 또한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Ifo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기업심리지표가 더욱 악화
 - 유로지역의 안정 및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이 거시경제정책 운용상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선택이 어려운 상황
- 전망
- 하반기 해외경제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에도 지난해(0.8%)와 같은 저성장에 그칠 전망

- 유로중앙은행은 작년 11월에 2003년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을 2%내외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03년 4월에 1.1~2.1%내외로, 2003년 6월에는 0.4~1.0%로 각각 하향수정전망

<표 10> EU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 | 2001 | 2002 | | | | 2003 | | | | |
|-------------------------|----------------|----------------|----------------|----------------|----------------|----------------|----------------|----------------|----------------|----------------|
| | | 연간 | 2/4 | 3/4 | 4/4 | 1/4 | 2월 | 3월 | 4월 | 5월 |
| EU GDP성장률 ¹⁾ | 1.4 | 0.8 | 0.4 (0.8) | 0.3 (1.0) | 0.1 (1.2) | 0.0 (0.8) | | - | - | - |
| 독일GDP성장률 ¹⁾ | 0.6 | 0.2 | 0.2 (0.4) | 0.3 (1.0) | -0.03 (0.5) | -0.2 (0.5) | | - | - | - |
| 산업생산 | 0.4 | -0.6 | -0.7 | 0.0 | 1.2 | 0.1 | 0.4 | -1.2 | - | - |
| 소매판매 | 1.4 | 0.1 | -0.2 | 0.2 | -0.3 | 0.1 | -0.8 | -1.2 | - | - |
| 실업률 | 8.0 | 8.3 | 8.2 | 8.3 | 8.4 | 8.6 | 8.7 | 8.8 | 8.8 | - |
| CPI상승률 ¹⁾ | 2.2 | 2.1 | 1.9 | 1.9 | 2.2 | 2.3 | 2.4 | 2.4 | 2.1 | 1.9 |
| 구매관리자지수 ²⁾ | 47.8 (51.6) | 49.8 (51.6) | 51.4 (52.9) | 50.4 (50.8) | 49.0 (50.5) | 49.3 (50.0) | 50.1 (48.9) | 48.4 (47.7) | 47.8 (47.7) | 46.8 (47.9) |

주 : 1)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임

2) 전년동월대비

3) 1995=100, 괄호안은 서비스업임

자료 : ECB, Monthly Bulletin(2003.5), EUROSTAT, Reuters

2. 국제금융시장 : 금리 및 환율

국제금리 : 하반기이후, 미국 장단기 금리 상승 전망

■ 동향

- 미국, 일본, 유로권의 장·단기 금리는 경기회복 지연으로 하락세 지속
 - 이라크전쟁개시로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채권수요 증가로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조 기중전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증가로 4월중 일시적으로 상승세.
 - 그러나 경기회복지연과 디플레이션의 우려로 장·단기금리 하락세가 지속

■ 전망

- 미국금리는 경기회복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 만 유로권 및 일본금리는 경기회복 지연 전망으로 금리가 당분간 하락세를 보일 전망

<표 11> 주요국의 장·단기 금리 추이

(단위:%)

| | | 2000 | 2001 | 2002 | 2003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6 | 6/9 |
| 단기 금리 | 미국 | 6.399 | 1.881 | 1.380 | 1.350 | 1.340 | 1.279 | 1.310 | 1.280 | 1.207 | 1.200 |
| | 일본 | 0.545 | 0.097 | 0.065 | 0.061 | 0.059 | 0.057 | 0.060 | 0.056 | 0.058 | 0.058 |
| | 유로 | 4.854 | 3.300 | 2.861 | 2.805 | 2.530 | 2.520 | 2.527 | 2.274 | 2.140 | 2.131 |
| 장기 금리 | 미국 | 5.120 | 5.030 | 3.810 | 3.970 | 3.690 | 3.800 | 3.840 | 3.370 | 3.350 | 3.280 |
| | 일본 | 1.630 | 1.370 | 0.910 | 0.810 | 0.790 | 0.710 | 0.615 | 0.540 | 0.514 | 0.506 |
| | 유로 | 4.850 | 5.000 | 4.200 | 4.070 | 3.920 | 4.040 | 4.092 | 3.721 | 3.679 | 3.592 |

주 : 단기금리는 3개월물 리보금리이며, 장기금리는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을 사용

단, 유로 장기금리는 독일 정부채 금리임.

자료 : ECB, Monthly Bulletin(2003.5), B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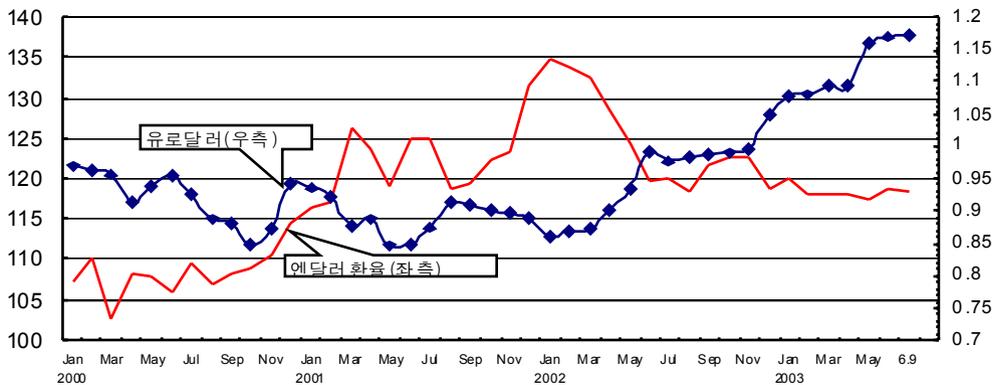
환율 : 달러약세 기조 지속 전망

■ 동향

■ 미달러화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약세 지속

- 엔화는 5월말 119.29로 연초(118.8)에 비해 0.5% 절상
- 유로화는 5월말 1.178로 연초(1.0487)에 비해 11.6% 절상
- * 2002년에는 엔화와 유로화는 각각 13.3%, 18.1% 절상

<그림 15> 엔화 및 유로화 환율추이(기말기준)



■ 전망

■ 당분간 달러약세가 지속될 가능성

- 미국의 경상수지적자 누증 등 달러 약세요인이 단기간내에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최근 유로화가 달러화의 대체통화로서 인식이 점차 증대
-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5월 유로화는 1.15 달러, 엔화는 117.7엔으로 예상하며 달러 약세기조를 전망.

3. 원자재가격

국제유가 : 공급확대로 하향 안정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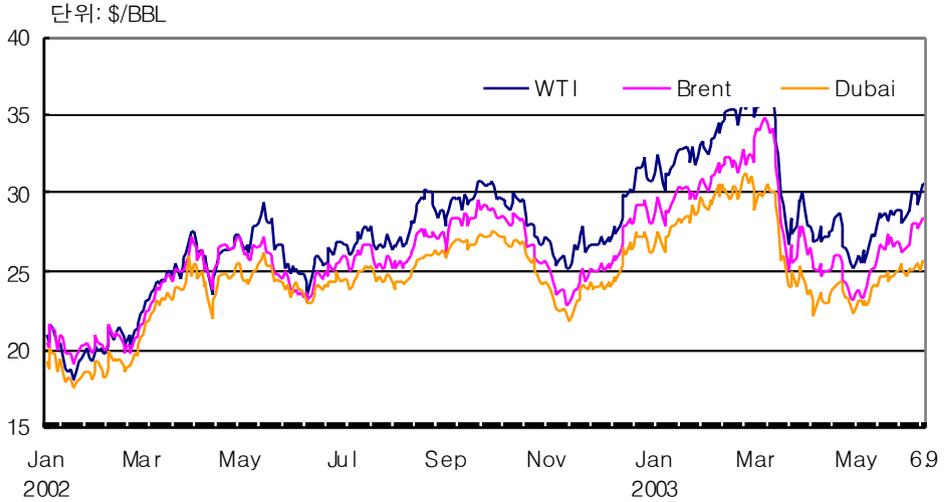
■ 동향

- 올해 국제유가는 이라크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급등락을 경험
 - 3월초에는 전쟁으로 인한 공급차질 우려로 상승하였으나 조기종전과 전쟁에 따른 유전 피해가 미미함에 따라 원유가격의 급락
 - 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일일 200백만 배럴 감산결정(4월말)과 생산쿼터 준수 요구(6월1일)로 다시 상승세

■ 전망

- 이라크 원유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하락 전망
 - OPEC의 생산량 쿼터 준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경기회복의 둔화에 따른 석유수요의 감소와 이라크의 원유 공급확대로 일일 190만 배럴의 초과공급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블룸버그통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약 1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

<그림 16> 국제 원유가격 추이



제 3 장

국내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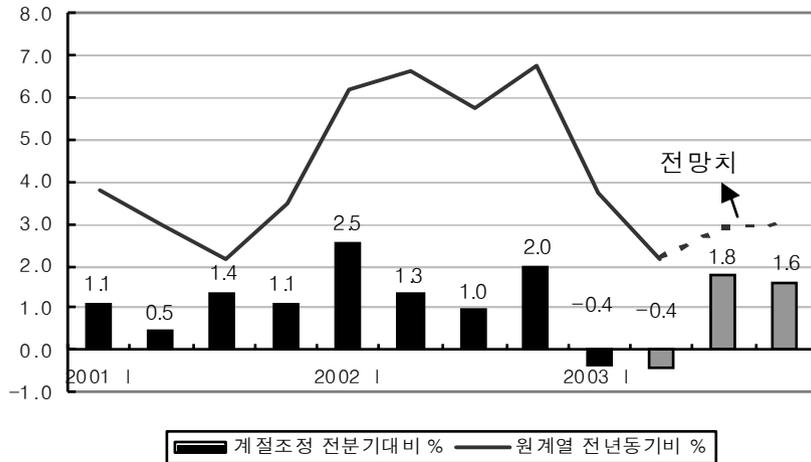
1. 실물부문

소비·투자부진 및 수출증가율 둔화로 올해 성장률 3% 하회 전망

- 연초 이후 내수, 특히 소비의 감소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 올해 우리 경제의 저조한 성장을 예견케 해주고 있는 가운데 수출회복이 성장의 관건임. 미국경제회복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SARS의 여파로 중화권 경기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출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연간 성장률은 작년 성장세의 반을 하회하는 2.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지금까지 발표된 각종 월 단위 지표를 보면 2/4분기중 성장세가 전년동기대비 3.7%를 기록한 1/4분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전기대비로는 1/4분기에 이어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우리보다 평균성장률이 훨씬 낮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말하는 불경기(recession)에 해당되는 것임.
- 반기별 추세를 보면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가파른 내수 위축세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전망. 그 동안 조기 집행된 재정지출, 향후 예상되는 소폭 추가 금리인하와 추경 등이 경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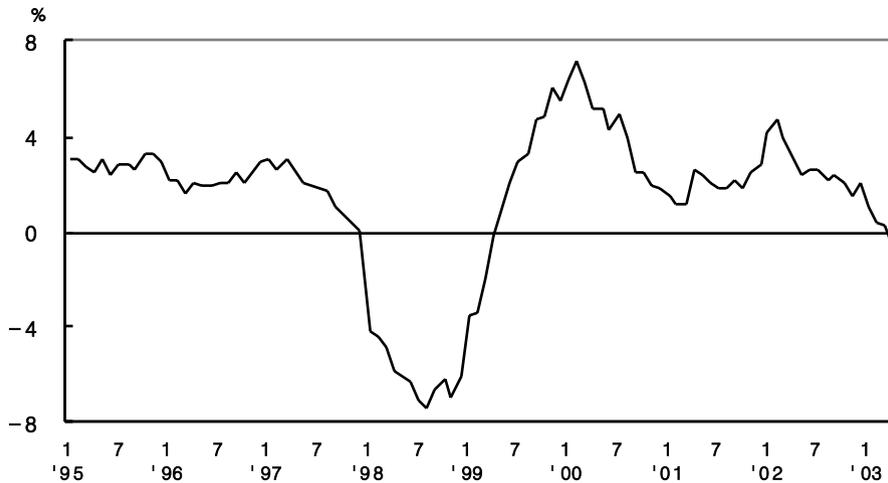
- 전기 대비 성장률이 3/4분기와 4/4분기에는 각각 1.8%와 1.6%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 소비급락추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불안으로 보임. 작년말 이후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한 고용증가추세가 4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음. 근로소득은 가계부문의 제일 큰 소득源임. 따라서 취업감소는 제일 중요한 근로소득의 향후 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고조시켜 소비심리 위축을 가져오고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게 됨

<그림 17> 실질 GDP 전분기 대비 증감률



- 물론 소비신용여건 악화도 소비위축과 무관하지 않음. 신용불량자의 1/3이 5백만 이하 소액 연체자인 것을 감안하면, 많은 경우 소득감소에 따라 채무 연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나타나고 있는 광범위한 소비감소세는 일반 가계의 소비-저축 선택을 반영하고 있음.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증대가 가계로 하여금 소비를 낮추고 저축을 늘리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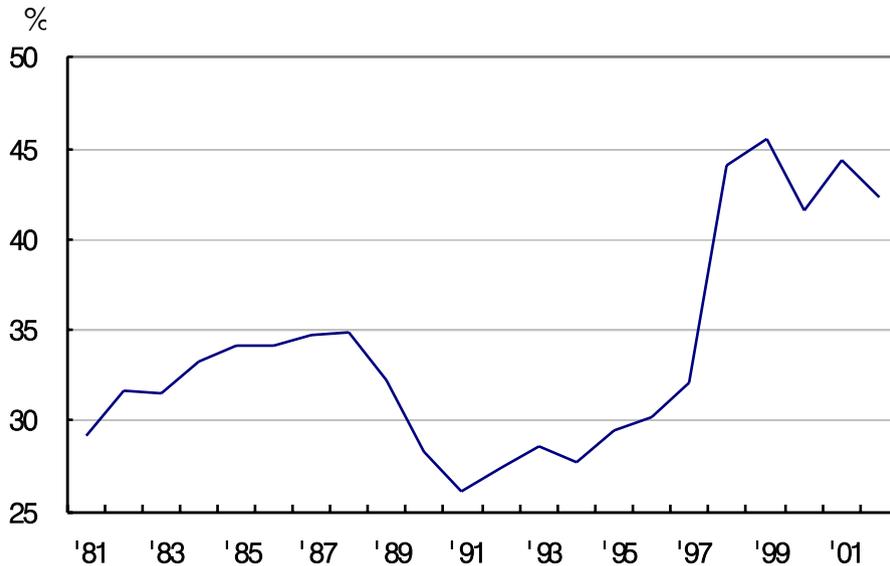
<그림 18 > 취업자수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1995.1-2003.4)



- 이런 분석은 한계소비 성향을 위축시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약 4조원의 추가 재정지출의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가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함.
 - 추경은 지출된 액수가 민간에서 다단계 추가 지출을 유발시킴으로써 전체 지출 증대 및 소득과 생산증대를 도모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추가지출이 얼마나 유발되는가는 가계의 소비성향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침.
 - 예를 들어 향후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번 분기에 추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비로 연결되기 보다는 저축증대로 이어질 것임. 이런 예비적 저축 (precautionary saving)의 증대가 정부지출증대를 통한 경기진작 노력을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경우가 일본임
- 2001년 이후 지금까지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 장기화되고 있는 투자부진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진을 심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잠재성장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감각상각 되는, 즉 마모되어 없어지는 고정자본과 신규투자의 비율이 외환위기 이전까지 30%를 하회하였으나 1998년 이후 40%를 상회하고 있음. 총 자본 stock의 증가세가 그 만큼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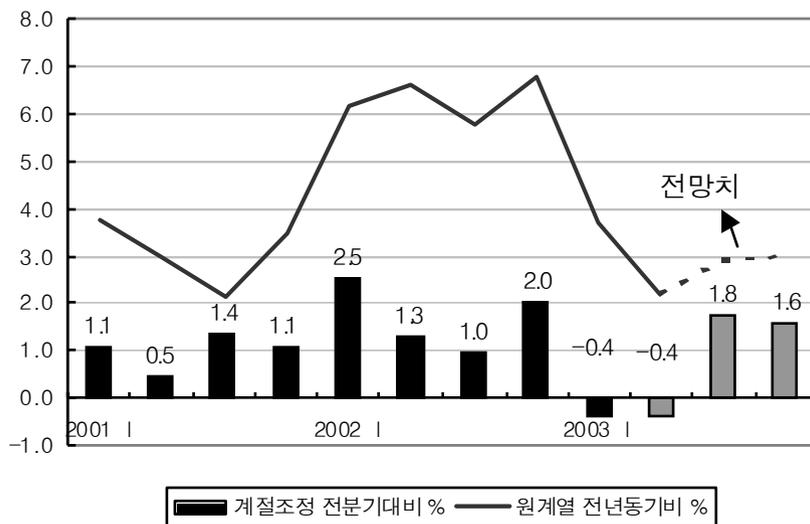
<그림 18> 총자본감가상각/신규투자 비율 추이 (1980-2002, 명목)



- 신규투자의 구성을 보면 과거에 비해 주거용 건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주거관련 투자는 시설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능력에 기여하는 바가 낮음. 따라서 생산력과 관련이 높은 분야의 투자 감소추세는 위에서 본 것 보다 더 심각함.
- 총고정자본량은 경제 전체의 잠재생산능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결국 잠재생산력 저하로 이어질 것임.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염두에 두면 자본량 축적을 가속화 시켜야 성장추세를 유지할 수 있음.

- 5월중 기계류 수입이 크게 둔화되어 향후 투자회복에 대한 기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투자부진 추세는 단기 및 중장기에 걸쳐 부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의 타개가 시급함.
- 연간 성장률은 2%대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지겠지만 분기별로 볼 때 우리 경제는 2/4분기를 바닥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1/4분기와 2/4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이 예상되는 우리 경제는 3/4분기와 4/4분기에 는 각각 전분기대비 1.8%와 1.6%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이는 과거 경기회복기에 비해서 강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경기상황이 상반기에 비해 점차 호전될 것임을 말해줌.
 - 물론 이러한 회복세는 한차례의 추가적 금리인하, 하반기 추경집행 등 정부의 경기부 양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그림 19> 실질 GDP 전분기 대비 증감률



2. 물가부문

수요부진으로 물가상승률 3%대 안정 예상

-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고유가의 안정과 지속적인 총수요 위축으로 향후 물가는 안정세를 보일 전망. 원화 환율가치가 안정내지 강세를 보일 전망이어서 물가하향 안정화에 기여할 것임. 다만 1/4분기까지의 높은 물가상승률의 영향으로 연간 물가상승률은 3%대 초반에 이를 전망.

3. 대외거래부문

경상수지 소폭 적자 전망

- 1/4분기에 나타났던 수입증가세(30.7%)가 수출증가세(21.5%)를 크게 상회하는 추세는 4월부터 유가안정으로 원유수입부담이 줄어들며 중단되었음. 수입증가세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상품수지는 연간 약 110억불 흑자를 보일 전망. 하지만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는 연간 소폭(약 9억달러) 적자 예상.
- 5월에 나타난 수출증가세의 큰 폭 하락은 국내의 조업일수 감소와 화물연대 파업이외에 그 동안 우려되던 SARS 영향을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이 여파가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따라 하반기 수출실적이 크게 달라질 전망.
- 중화권의 SARS 여파 조기극복 시나리오와 함께 특히 만약 현재 약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하반기에 본격화된다면 우리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임. 본원의 예상보다 빠른 수출증가세가 실현된다면 올 경제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임.

4. 금융부문

장기금리: 경기회복지연으로 현 수준보다 다소 하락할 전망

- 금년 하반기 물가상승세 둔화, 경기회복지연 등으로 장기금리는 현 수준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미·이라크 전쟁의 사실상 종결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회복지연, 물가상승세 둔화 등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금리 인하 예상
 - 장기금리는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으로 하반기에는 5.1%대가 예상되며 연평균으로는 5.2%를 보일 전망

원/달러환율: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경상수지 적자누중,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따라 나타난 미국 달러화 약세가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내수침체로 인한 경기둔화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순매도 현상이 나타나 원화가치를 소폭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화가치의 상대적 강세를 상쇄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종합해보면 원/달러환율은 금년 중 미국의 달러화 약세가 원화가치 약세에 비해 우세하여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

<표 12> 2003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달러

| | 2002년 | 2003년 |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국내총생산 | 6.3 | 3.7 | 2.2 | 2.9 | 3.0 | 2.9 |
| 총소비 | 6.2 | 1.2 | -0.3 | 1.0 | 1.5 | 0.9 |
| 민간소비 | 6.8 | 0.9 | -0.7 | 0.8 | 1.3 | 0.6 |
| 고정자본형성 | 4.8 | 4.8 | 1.3 | 2.6 | 3.3 | 3.0 |
| 설비투자 | 6.8 | 1.6 | -1.8 | 2.4 | 4.4 | 1.6 |
| 건설투자 | 3.3 | 8.1 | 4.0 | 2.9 | 2.5 | 4.1 |
| 총수출 | 14.9 | 17.3 | 9.5 | 6.7 | 3.3 | 8.9 |
| 총수입 | 16.4 | 18.0 | 11.3 | 8.6 | 5.8 | 10.7 |
| 생산자물가 | 1.6 | 5.4 | 3.2 | 2.4 | 1.0 | 2.9 |
| 소비자물가 | 2.8 | 4.2 | 3.3 | 2.8 | 2.4 | 3.2 |
| 경상수지 | 60.9 | -17.2 | -1.2 | 2.3 | 7.1 | -8.9 |
| 상품수지 | 141.8 | 12.3 | 43.0 | 27.6 | 29.9 | 112.8 |
| 수출 | 1625.6 | 445.1 | 448.8 | 442.5 | 461.6 | 1798.0 |
| 증가율 (%) | 7.5 | 23.5 | 10.6 | 8.1 | 2.5 | 10.6 |
| 수입 | 1483.7 | 432.8 | 405.8 | 414.9 | 431.7 | 1685.2 |
| 증가율 (%) | 7.7 | 31.5 | 12.1 | 8.9 | 4.9 | 13.6 |
| 서비스,소득,이전수지 | -80.4 | -29.5 | -44.2 | -25.2 | -22.7 | -121.7 |
| 원/달러환율(평균) | 1251.8 | 1202.1 | 1208.5 | 1196.7 | 1194.1 | 1200.3 |
| 회사채수익률(% ,평균) | 6.6 | 5.4 | 5.2 | 5.1 | 5.1 | 5.2 |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거시경제정책 기초

-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에 주력
 - 북핵문제 등에 있어 한미공조체계 공고화 및 해외 국가신인도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일관성 및 정책신뢰성 확보, 부처간 정책공조 요망
 -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시장친화적이고 현 경기상황 및 기업현실에 걸맞은 합리성 견지에 노력하고 노사정 공동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혁정책 모색
 - 투자결정에 민감한 제도인 출자총액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주5일근무제, 산별노조,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의 예외 및 유예 조항이나 도입시기 등에 대한 심중한 검토 요망
 -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불법적인 기업경영이나 파업행위 등을 철저히 처벌하고, 일관되고 투명하며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 경기하강지속을 인식한 정책 운용 및 경기부양적 정책조합 추진 지속

- 금년 2/4분기에도 실질 GDP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질 가능성과 경기하강지속 가능성을 인식한 정책 운용
- 통화정책, 환율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등 거시경제정책들의 정책시차 및 유효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경기연착륙 유도
- 이와 함께 미시정책도 동반하여 경직적인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애로요인 해소를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기업투자활성화에 노력하고 위축된 민간소비활동도 촉진

2. 통화신용정책

- 경기하강지속 여부에 따라 정책금리의 점진적 연속 인하 고려
 - 향후 물가상승압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하강지속여부에 따라 정책기조를 분명히 하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금리의 점진적인 연속 인하 추진
 - 금리조정 폭은 정책금리를 0.25%p 단위로 미조정하는 소위 ‘그린스펀의 아기걸음마 방식(Greenspan's baby step)’ 을 활용하여 연속 인하
- ※ 본원이 전망한 금년 3/4분기 2.9%(전년동분기대비)와 4/4분기 3.0%의 경제성장률은 향후 정책금리를 3/4분기에 0.25%p를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가정
- ※ 참고로, 보수적인(conservative) 유럽중앙은행(ECB)이 6월 5일 유로지역의 경기악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2.5%에서 2.0%로 0.5%p 인하(이미 작년 12월 0.5%p, 금년 3월 0.25%p 각각 인하)
-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시적 정책도 병행하여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노력

- 최근에 나타난 부동산가격의 급등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가격 안정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가격 급등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정책금리의 인하가 향후 물가상승압력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물가상승원인이 공급측면 즉 유가나 농산물가격 상승 등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하반기에 소비나 투자 등의 총수요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로 인한 향후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시중유동성의 ‘풍요속의 빈곤’ 현상 해소

-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기업자금수요나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풍요속의 빈곤’ 현상 및 기업의 회사채, 기업어음 등 직접자금조달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여 금융시장의 유동성 강화
- 한편, 정책금리인하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즉, 최근 투자 및 소비 부진의 원인이 시중유동성부족이 아닌 향후 경기불투명성이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인하해도 투자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음
- 그러나, 정책금리인하에 의해 매우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기업의 투자여건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금융권의 보수적인 자금운용이 한계를 갖게 되며 자금조달시장의 흐름이 개선될 수 있어 제한적으로나마 정책유효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3. 재정 · 조세정책

- 중기재정적 시각에서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하반기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될 경우 적자재정 운용도 감수

- 현재 진행 중인 예산조기집행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재정의 상반기 조기지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하반기 재정지출 부족(작년 하반기에 비해 8.8조원 감소)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은 적절하다고 판단
- ※ 본원이 전망한 금년 3/4분기 2.9%(전년동분기대비)와 4/4분기 3.0%의 경제성장률은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2조씩 추가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가정
- 추경예산은 일시적인 경기부양 보다 향후 동북아 중심국가건설, 지역균형발전, 고용창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는 SOC투자 등 사회인프라 구축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되 연내 집행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재검토 요망
- 만약 하반기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8.8조원의 하반기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해 4.2조원의 추경예산 이외에 명목 GDP의 약 1%(약 6.3조원)의 적자재정도 감수하는 수준에서 과감한 재정지출을 추진하되 향후 중장기적인 균형재정에 노력
- 4.2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할지라도 금년 하반기 재정지출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4.6조원 감소하여 하반기만을 분리하면 경기부양적인 재정으로 볼 수 없음
- ※ 4.2조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은 적자채권 발행없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가용재원(31,458억원)을 활용하고 법인세 등의 세수경정(10,317억원)을 통해 마련하므로, 약 6.3조원의 재정적자는 중장기 균형재정계획으로 해소 가능
- ※ 6.3조원의 추가적인 추경예산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 1.7조원의 증가에 불과하며, 금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0.5조원의 추경예산으로 작년 일반회계 예산규모 109.6조원(전년대비 10.5% 증가)에서 10.5%가 증액된 121.1조원으로 추산(당초 금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7% 증액한 111.5조원)

※ EURO의 경우도 각국의 재정적자를 경기여건에 따라 명목 GDP의 3%까지는 허용
(Resolution of the European Council on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Amsterdam, 1997년 6월 17일)

■ 법인세 및 소득세 점진적 인하 및 각종 투자세액공제 확대

- 연결납세제도, 부동산세제,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세체계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검토
-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기 위해 소득과약이 미흡한 계층에 대한 세원 발굴 노력
- 우리나라 과세자 비율 58%를 고려할 때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미달점의 인하 노력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는 공평과세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범정부적 조치 필요

※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과표 산정에 있어 현재 및 향후 매출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는 ‘권리금’ 등과 연계하여 산정

- 외국인직접투자를 보다 활발하게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 경쟁국과 비교하여 이에 걸맞는 법인세 인하 필요

※ 주요국의 법인세 인하 추이: 캐나다(2005년 21%로 단계적 인하), 아일랜드(2003년 12.5%로 단계적 인하) 등

-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투명한 상거래 육성 및 세원 확보를 위해, 에어컨 등과 같이 이미 대중화된 제품들의 특소세과제 대상 제외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상향조정 등의 검토 요망

-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액 상향조정 : 급여 10% 초과금액의 20% → 50%,
한도액 500만원 → 1,000만원 확대
- 기업투자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
- ※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상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만으로는 투자유인강도가 미약하므로 정책유효성의 제고를 위
해 현행 10%에서 15%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실시
- ※ 현행 공제대상에 따라 3~7%인 세액공제율을 10%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4. 환율정책

- 환율시장의 급격한 변동 완화
 -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 환율변화의 방향은 용인하되 급변동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인 환율정책 요망
 - 외환보유고 등을 이용한 직접적인 시장개입보다는 외채상환 규모나 시기조절 등의 간접적인 방법 활용
 - 미 달러화 약세 지속 가능성에 대해, 단기적으로 정부가 달러화 급락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출금융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제품의 비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자체의 노력과 함께 이를 위한 정부의 여건 조성 요망

5. 물가안정화 대책

-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 미.이라크 전쟁 이후 유가하락이 가시화되고 있고 하반기 총수요압력이 적어 향후 물가상승이 적을 것으로 예상
- 향후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철저히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과세 노력
-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보유과세에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세율은 낮추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등의 단계적인 현실화)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안 필요
- 한편,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공급측면에서 강남지역과 같이 선호도가 매우 높은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재개발을 주택공급확충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의 주거 및 교육환경 등 개선
- 이와 함께, 특정지역 부동산가격 급등 원인의 하나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 주요 도시에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 고교평준화 폐지, 특수목적·자립형 사립학교·외국인학교 등의 설립 추진

6.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 카드채 문제로 인한 채권시장 마비 해결 및 자금시장 경색 완화
 - 최근 4.3조치 등의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은 건전성 등에 대한 카드사간의 차별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므로, 카드사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카드사별 차별화된 정책 필요
 - 부실한 카드사에 대한 과감한 퇴출 조치와 함께 건전한 카드사로의 파급을 막는 방어

벽(fire wall)을 시급히 구축하는 등 시장친화적 감독정책 노력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자금시장 경색완화에 노력하고, 북핵문제 등과 관련 뉴스에 따라 주가와 환율시장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으므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요망
- ※ SARS로 인한 대중국수출 차질로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무역금융금리 인하(현행 5~6%에서 4%미만) 및 융자기간 연장 추진
- 가계부실화 및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책 및 제2금융권 구조조정 추진
 - 채무자들의 자발적인 대출 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일시상환대출의 만기를 장기 분할 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주택관련 대출을 단기성 가계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선진화 없이는 가계대출문제의 해결이 어려우므로 현재 단기 부동화된 자금을 주택금융 시장으로 유도
 - 신용불량자 현황에 대해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신용불량자의 등록 기준을 합리화하며 무조건적 대량사면보다는 향후 채무상환 가능성 등에 따라 사회적 처벌과 구제 제도를 합리화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 제고 추진
 -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조기 민영화,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시장친화적이고 투명하며 일관성있고 합리적으로 적극 추진

7. 기업정책

- 불필요하고 획일적인 각종 규제 완화 및 국내외 기업투자 제고

- 건전하고 좋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 및 제도와 획일적인 정책지침을 개선하고 경쟁국 수준에 비교하여 우월한 투자유인구조를 확립하고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정비를 연내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친화적 규제개혁 노력 다소 미흡
- 민간의 소비심리 및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정책이 요망되고, 기업들도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노력 경주 필요
- ※ 수도권 공장건설 규제, 비현실적인 환경기준 등 개선 요망
- 회계관행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게 개선하고 자발적인 기업윤리 경영의 정립 및 준수
- ※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상반기 중 입법 추진
- 부실한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퇴출구조 확립
 - 부실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원리에 따라 과감하게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 정비
 - 부도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장이 두려워 기업회생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 부실한 기업과 건실한 기업간의 차별화를 기초로 차단벽(fire wall)을 구축하고 부도사후관리의 체계화에 노력하여 시장의 안정성 도모
 - ※ 정부는 통합도산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의 선진 퇴출시스템 구축 추진

8. 노동정책

- 법치주의에 입각한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조건제도 도입, 정부, 재계 및 노동계가 무파업 산업평화 유지, 실질적인 정리해고제 도입,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등에 공동 노력
- 한시적인 무파업 산업평화에 노사정 공동으로 노력하고 정부는 노사문제에 있어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며 기업은 불법노동행위추방 및 근로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근로자는 불법파업행위추방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
- ‘심각한 경영 악화’ 상태에서만 적용되는 정리해고제를 ‘생산성 격차’에 기초한 실질적인 정리해고제 도입 추진
- 정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리창출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활성화, 기업은 경력단절 상태의 근로자 재고용 및 재취업프로그램 확대, 근로자는 자기개발노력 및 무리한 근로조건요구 자제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비정규직 증가 억제에 노력

부 록

주요경제통계

※ 주요경제통계 ※

|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 | | | | | | | | |
|-----------------|------------|------|------------|-------------|------|-------|-------|------|--|
| 연월 | 경제성장률 | | 1인당 GNI | 소비 | | 투자 | | | |
| | GDP | 제조업 | | 민간 | 정부 | 총고정투자 | 설비 | 건설 | |
| | 전년동기 대비(%) | | US \$ | 전년동기 대비 (%) | | | | | |
| 2000년 | 9.3 | 15.9 | 9,770 | 7.9 | 0.1 | 11.4 | 35.3 | -4.1 | |
| 2001년 | 3.1 | 2.1 | 9,000 | 4.7 | 1.3 | -1.8 | -9.6 | 5.3 | |
| 2002년 | 6.3 | 6.3 | 10,013 | 6.8 | 2.9 | 4.8 | 6.8 | 3.3 | |
| 2000년 3/4 | 10.0 | 18.5 | - | 6.6 | -0.7 | 10.9 | 32.3 | -3.0 | |
| 4/4 | 5.0 | 6.9 | - | 3.9 | 0.5 | 2.0 | 9.3 | -2.7 | |
| 2001년 1/4 | 3.8 | 4.6 | - | 1.9 | 0.6 | -4.9 | -9.7 | 1.0 | |
| 2/4 | 3.0 | 2.5 | - | 4.4 | 1.0 | -5.2 | -11.0 | 0.1 | |
| 3/4 | 2.1 | -0.8 | - | 5.3 | 1.9 | -2.5 | -14.7 | 8.4 | |
| 4/4 | 3.5 | 2.4 | - | 7.2 | 1.5 | 4.9 | -2.2 | 10.0 | |
| 2002년 1/4 | 6.2 | 4.2 | - | 8.9 | 5.3 | 6.6 | 3.8 | 9.7 | |
| 2/4 | 6.6 | 6.6 | - | 7.9 | 4.4 | 5.4 | 7.5 | 3.8 | |
| 3/4 | 5.8 | 5.5 | - | 6.2 | 1.5 | 0.5 | 7.8 | -4.6 | |
| 4/4 | 6.8 | 8.8 | - | 4.3 | 1.0 | 6.8 | 8.2 | 6.0 | |
| 2003년 1/4 | 3.7 | 5.2 | - | 0.9 | 3.5 | 4.8 | 1.6 | 8.1 | |

| 무역 · 국제수지 | | | | | | | | |
|-----------|---------|---------------|---------|---------------|-------|-------|--------------------------------|--------------|
| 연월 | 무역 | | | | 국제수지 | | 외환 보유액 ^D (기말) | 대미환율 (기말) |
| | 수출(FOB) | | 수입(CIF) | | 상품 | 경상 | | |
| | 억 달러 | 전년동기 대비(%) | 억 달러 | 전년동기 대비(%) | 억 달러 | | 원/달러 | |
| 2000년 | 1,722.7 | 19.9 | 1,604.8 | 34.0 | 168.7 | 122.4 | 962.0 | 1,259.7 |
| 2001년 | 1,504.4 | -12.7 | 1,411.0 | -12.1 | 134.9 | 82.4 | 1,028.2 | 1,326.1 |
| 2002년 | 1,624.7 | 8.0 | 1,521.3 | 7.8 | 141.8 | 60.9 | 1,214.1 | 1,186.2 |
| 2002년 3월 | 132.5 | -6.2 | 119.9 | -7.4 | 18.5 | 9.7 | 1,060.9 | 1,325.9 |
| 4월 | 131.9 | 8.8 | 125.6 | 12.0 | 11.2 | -0.9 | 1,076.6 | 1,294.0 |
| 5월 | 141.7 | 6.5 | 127.0 | 9.9 | 15.0 | 9.6 | 1,096.3 | 1,226.3 |
| 6월 | 128.9 | -0.3 | 119.3 | 1.8 | 17.4 | 7.3 | 1,124.4 | 1,201.3 |
| 7월 | 134.0 | 17.6 | 130.3 | 17.3 | 7.1 | 0.8 | 1,155.0 | 1,188.0 |
| 8월 | 139.6 | 18.6 | 128.6 | 13.4 | 10.3 | 3.2 | 1,165.4 | 1,201.9 |
| 9월 | 139.0 | 11.7 | 129.9 | 10.9 | 10.9 | 5.3 | 1,166.9 | 1,227.8 |
| 10월 | 150.9 | 24.8 | 138.2 | 20.1 | 21.2 | 14.9 | 1,170.0 | 1,221.6 |
| 11월 | 152.0 | 23.1 | 139.9 | 21.3 | 13.6 | 11.2 | 1,183.3 | 1,208.8 |
| 12월 | 150.3 | 26.1 | 144.5 | 27.9 | 3.9 | -6.5 | 1,214.1 | 1,186.2 |
| 2003년 1월 | 143.3 | 25.9 | 144.8 | 27.8 | 7.9 | -4.2 | 1,229.1 | 1,170.1 |
| 2월 | 133.5 | 21.1 | 138.4 | 32.2 | 5.0 | -1.1 | 1,239.9 | 1,193.7 |
| 3월 | 154.0 | 16.2 | 159.0 | 32.6 | -0.6 | -11.9 | 1,238.2 | 1,254.6 |
| 4월 | 157.8 | 19.6 | 148.3 | 18.1 | 12.7 | -3.7 | 1,236.2 | 1,215.3 |
| 5월 | 147.9 | 4.4 | 135.3 | 6.5 | 16.9 | 11.8 | 1,283.4 | 1,205.3 |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전망과 정책과제

물가 · 실업 · 이자율

| 연월 | 물가 ²⁾ | | 실업률 (계절조정) | 제조업 명목임금 | 통화 ³⁾ | | 회사채 수익률 | 주가지수 80.14=100 |
|----------|------------------|----------|---------------|-------------|------------------|------|------------|-------------------|
| | 생산자 | 소비자 | | | 신M2 | M3 | | |
| | 전년동기대비 (%) | | (%) | 전년동기대비 (%) | | 연%평균 | 기간평균 | |
| 2000년 | 2.0(1.7) | 2.3(2.8) | 4.1 | 8.6 | 2.2 | 5.6 | 9.35 | 734.2 |
| 2001년 | 1.9(-0.7) | 4.1(3.2) | 3.8 | 5.8 | 6.9 | 9.6 | 7.05 | 572.8 |
| 2002년 | 169(4.6) | 2.7(3.7) | 3.1 | 11.9 | 11.5 | 12.9 | 6.56 | 757.0 |
| 2002년 3월 | 0.0 | 2.3 | 3.6(3.1) | 11.2 | 11.1 | 12.9 | 7.05 | 864.7 |
| 4월 | 0.7 | 2.5 | 3.2(3.1) | 9.9 | 12.3 | 13.7 | 7.20 | 894.0 |
| 5월 | 1.5 | 3.0 | 3.0(3.1) | 13.0 | 12.4 | 13.7 | 7.07 | 842.2 |
| 6월 | 1.2 | 2.6 | 2.8(3.1) | 9.4 | 12.5 | 13.5 | 6.76 | 784.3 |
| 7월 | 0.9 | 2.1 | 2.8(3.0) | 15.2 | 11.5 | 13.0 | 6.59 | 753.7 |
| 8월 | 1.6 | 2.4 | 3.0(3.2) | 9.8 | 10.7 | 12.4 | 6.23 | 713.2 |
| 9월 | 2.2 | 3.1 | 2.6(2.9) | 10.8 | 10.6 | 12.4 | 6.06 | 703.2 |
| 10월 | 3.1 | 2.8 | 2.8(3.1) | 15.4 | 11.6 | 12.5 | 6.01 | 642.2 |
| 11월 | 4.0 | 3.5 | 2.8(3.0) | 11.1 | 13.3 | 13.7 | 5.90 | 679.7 |
| 12월 | 4.6 | 3.7 | 3.1(3.0) | 22.8 | 14.1 | 13.3 | 5.88 | 699.8 |
| 2003년 1월 | 5.1 | 3.8 | 3.5(3.1) | 41.4 | 13.9 | 13.1 | 5.48 | 631.0 |
| 2월 | 5.2 | 3.9 | 3.7(3.0) | -5.6 | 13.3 | 12.5 | 5.25 | 591.6 |
| 3월 | 5.8 | 4.5 | 3.6(3.1) | 9.2 | 11.9 | 11.8 | 5.44 | 550.8 |
| 4월 | 3.9 | 3.7 | 3.3(3.2) | - | - | - | 5.39 | 585.9 |
| 5월 | 2.8 | 3.2 | - | - | - | - | 5.26 | 613.5 |

주 : 2)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평잔기준

산업활동

| 연월 | 산업생산 | | 수요관련지표 | | | | | | | |
|----------|-----------|-----------------|------------|-------------------------|--------------------------|------------|----------|----------|-------|------|
| | 전산업 | 평균 동률 (%) | 도소매 판매액 | 소비재 출하 ⁴⁾ | 국내기계 수주 ⁵⁾ | 설비투자 추계 | 건설 수주 | 건설 기성 | 공공 | 민간 |
| | 전년동기대비(%) | | | | | | | | | |
| 2000년 | 16.8 | 78.6 | 9.8 | 6.0 | 11.7 | 30.8 | 15.1 | -3.1 | -5.6 | -1.5 |
| 2001년 | 1.8 | 75.1 | 4.6 | 2.9 | -1.0 | -2.3 | 22.1 | 10.0 | 4.4 | 14.6 |
| 2002년 | 7.3 | 76.9 | 6.0 | 8.0 | 21.0 | 1.6 | 21.3 | 3.7 | -10.5 | 12.7 |
| 2002년 3월 | 7.1 | 78.0 | 8.2 | 10.1 | 48.4 | 3.1 | 163.4 | 4.3 | -4.7 | 7.8 |
| 4월 | 10.6 | 78.1 | 7.9 | 8.0 | 21.9 | 1.5 | 30.6 | 0.3 | -10.8 | 6.3 |
| 5월 | 9.2 | 77.0 | 7.4 | 11.0 | -13.3 | 3.9 | 2.3 | -2.0 | -15.8 | 7.3 |
| 6월 | 2.5 | 75.1 | 4.1 | 1.7 | 25.9 | -5.4 | 2.6 | 8.2 | -3.9 | 16.0 |
| 7월 | 9.3 | 76.9 | 6.6 | 6.1 | 1.2 | -2.9 | 2.7 | 10.4 | 2.8 | 13.1 |
| 8월 | 6.8 | 76.8 | 5.9 | 8.5 | 4.3 | 1.1 | 5.4 | -5.1 | -20.1 | 3.9 |
| 9월 | 0.0 | 76.4 | 2.9 | -0.9 | 5.0 | 3.4 | -1.9 | -10.8 | -23.9 | -2.0 |
| 10월 | 11.9 | 77.4 | 7.0 | 11.0 | 3.0 | 2.7 | 1.6 | 6.4 | -13.2 | 18.3 |
| 11월 | 7.2 | 77.1 | 4.8 | 7.6 | 2.1 | 4.4 | 8.0 | 5.8 | -16.4 | 20.9 |
| 12월 | 9.5 | 77.0 | 1.8 | 8.4 | 1.8 | 2.4 | 1.4 | 11.3 | -4.4 | 23.7 |
| 2003년 1월 | 3.5 | 77.5 | 4.5 | 0.9 | 2.3 | -7.7 | 2.0 | 20.9 | 10.7 | 25.9 |
| 2월 | 10.2 | 77.9 | -1.8 | -1.8 | 9.7 | -3.6 | 4.4 | 10.4 | -21.5 | 31.6 |
| 3월 | 5.0 | 76.9 | -3.0 | -3.8 | -4.2 | 0.1 | -3.6 | 16.9 | -4.7 | 33.3 |
| 4월 | 1.8 | 76.6 | -4.3 | -6.7 | -1.1 | -4.2 | 7.8 | 11.9 | -4.0 | 23.6 |

주 : 4)내수용 5)내수용, 선박제외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관1쇄 인쇄/2003년 6월 21일

1관1쇄 발행/2003년 6월 21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13-53

(150-7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3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89-8031-277-

3,000원